

대학교육 수요자 좌담회

□ 일 시 : 2008년 1월 29일(화) 12시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회의실
 □ 진 행 : 오대영(중앙일보 국제부장)

□ 참석자 : 박유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최성희(중앙대학교 학보사 편집장)
 □ 정 리 : 최두현, 정수경(대교협)



진행자 :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정책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교육, 행정 등 다른 분야에서도 대학의 자율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의 자율권 확대는 우리 대학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대학의 존립 목적에 비춰볼 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가장 중요해진 곳이 대학입니다. 지식이 곧 국가 경쟁력인 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조차도 정부와 대학들이 앞다투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소 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자율화가 확대되면 대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만큼 대학의 책임도 요구됩니다. 오늘은 대학교육의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대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학부모, 학생, 최대 수요자인 경제계 측에서 각각 한 분씩 모셨습니다. 진행은 한 질문에 세분이 돌아가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인데 비해 우리 대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80%를 상회하고 있지만 세계 각 통계를 보면 IMD 평가에서는 60개국 중 2005년 52위, 2006년 50위, 2007년 40위였고 얼마 전 발표된 영국 ‘더 타임즈’ 평가에서는 서울대가 52위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전경련 이병욱 상무 : 저는 국내와 외국에서 MBA를 했

는데, 외국은 고객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어 교육 후 사회에 나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MBA 과정에 있는 학생의 미래 고객은 대부분 CEO나 CFO, 기업의 핵심 책임자이므로, 그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커뮤니케이션하는 노하우 등을 가르치며, 또는 졸업 후 스스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을 선호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외국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지표상도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현실이 우리의 고등교육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대 최성희 편집장 : 인재의 해외유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인재의 해외 유출의 의미에 대해 이병욱 상무님과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교육받는 교육과정은 균형잡힌 시각을 갖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경제학과에서는 경제학의 좌파, 우파의 균형잡힌 내용이 아닌 좌파 쪽 내용만 가르치고 있어 우리는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잡힌 시각이나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겸임교수를 교수들의 세력다툼으로 모셔오지 못하는 경우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벗어나 균형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학생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 : 학문을 받아 들일 학생들의 실력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학생들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와 외국의 학교운영 시스템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것이 결국 순위의 차이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서구의 역사 깊은 메이저 대학에 비하면 역사도 짧고, 그렇기에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애정 또한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가가 고등교육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을 국력

신장이나 국가 지식기반구축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인 자녀의 대학입학 수준에서 바라본다는 의미지요. 고등교육을 개인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의 국가전략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때 국가와 사회의 투자와 지원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 이병욱 상무님께서 '맞춤형 교육'이란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대학교육이 무엇이 부족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경련 이병욱 상무 : 예를 들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들의 문서작성과 관련한 문장력이나 한자 사용능력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영어도 시험점수는 높지만 외국인을 만나 비즈니스를 위해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매우 취약합니다. 비즈니스 영어는 물론이고, 생활영어, 비즈니스 국어, 한자교육 역시 대학에서 거의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배출하는 학생들의 최종 수요자는 기업인데,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재를 선발하고 나면 2~3년은 지나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에 기업의 인사책임자들은 주요 경쟁국의 졸업생을 활용하는 것이 차라리 경제적, 시간적으로 비용이 덜 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연구개발) 측면에서만 봐도 우리 대학의 기술은 교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한 것일 뿐 실제로 미래를 내다보고 시장에 내놓을 수는 있는 기술은 많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기술은 기술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대학은 기업에 대한 고객 마인드가 거의 없는 셈이죠. 인재양성 면에서도, 기술개발 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對 기업 고객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진행자 : 학생 입장에서 볼 때 대학이나 혹은 교수가 학생에 대해 고객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예를 들어 전과를 하고 싶거나 할 때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하거나 지도받을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되어 있나요?

중앙대 최성희 편집장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의 학생에 대한 고객 마인드는 점수를 많이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전과의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보통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관계 없이 점수에 맞춰 학교/학과를 선택하여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결정할 때 전과가 쉽게 되는지도 학교 선택의 한 항목이 됩니다. 막상 대학에 입학해서 취업을 위해 혹은 적성에 맞는 학과로 전과를 하고자 하여 교수님께 상의를 드리면 먼저 싫어하는 내색부터 하십니다.

얼마 전 몇 개 대학에서 자신의 리포트 결과 돌려받기 캠페인을 시도하였습니다. 취지는 리포트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 학생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만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보니 결국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일면만 봐도 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낮은 교육을 받고 있는지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들이 자교 학생들의 그룹 스터디를 위해 사용하는 강의실에 대여료를 받는 등 등록금에 비하면 서비스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진행자 :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들어 대학 5년제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졸업을 늦추고 휴학을 많이 한다는 뜻인데 왜 학생들은 휴학을 할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대학에 입학해서 1, 2년은 맘껏 즐기며 놀다가 어느덧 3학년이 되고 취업 준비를 하려니 해 놓은 것이 없어 휴학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걸 방관하는 우리의 대학은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본 도쿄대학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1, 2학년은 대부분 교양과정이고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갈 때 유급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갈 때 유급과정을 두었습니다. 유급제도를 좀 더 강화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 실력을 키우자는 의도입니다. 과연 우리 대학들은 이러한 노력, 혹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중앙대 최성희 편집장 : 말씀하신 1, 2학년의 즐기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예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로, 대부분 1학년 입학부터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학에서의 지원과 노력은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 :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비싼 등록금만 해결해주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아리 활동, 교양 함양, 취업대비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학생들은 외부 학원으로, 해외연수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자인, 회계, 고시공부, 외국어 등등 모두 학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학부모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대학은 진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문제나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시스템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개개인의 문제라 하더라도 대학 시스템 안에 학생들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기관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 거기까지 기대하기에는 요원해 보입니다.

대학의 등록금과 교육서비스

진행자 : 이번에는 등록금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통계를 보면 우리 대학의 등록금은 미국보다는 적지만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꽤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에 걸맞은 교육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미국, 일본의 유명 대학들은 경제사정이 어려워 공부를 할 수 없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장학금 수혜율을 높여서 학생의 경제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대학을 경영하는 사람의 마인드만 바꾸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우리 대학의 경영마인드는 외국 대학에 비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나친 규제도 대학들의 경영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의 사립대학이 수익용 기본 자산 운용이 거의 없이 등록금 의존율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재단이 그만큼 자기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 : 외국과의 등

록금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OECD국가는 국가적 차원의 고등교육 투자가 많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수준이 등록금 액수에 걸맞은 교육인가를 따져보기에 앞서 국가적 차원의 투자비용에 비해 그에 걸맞은 교육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수준의 대학들은 연 2~3만 달러 정도가 등록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규모의 기금이 대학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학생당 대학교육에 드는 교육비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가계소득이 1만 8천 달러 이하일 때는 장학금 지급으로 등록금을 감면해줄 계획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대학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이며, 대학의 재정확보를 위해 다양한 통로를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가 재정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혜택이 대학교육을 위해 정확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을 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경련 이병욱 상무 : 우선 대학의 수입원이 다양하면 등록금 의존도가 줄어들 것인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교육 관련된 비즈니스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재원의 다양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부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아 기부에 인색하며, 기여입학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까지 겹쳐 대학에 대한 기부가 매우 적습니다. 또 하나, 우리 대학은 교육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고객마인드가 미흡하여 외부로부터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학내에 팽배한 재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 때문에 재단의 추가 투자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 2004년 국립대 법인화 이후 일본의 고등교육에는 국제화, 교육, 경영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영마인드가 변하면서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기부금인데, 일례로 그동안 없었던 도쿄대, 교토대 등의 대학들이 총동창회를 구성하여 기부금을 모았고, 와세다 대학도 올해

2억 엔을 목표로 기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학협동을 통한 물건 판매입니다. 리츠메이칸대학은 "R"을 학교 브랜드로 등록하여 상품에 "R"을 새겨 대대적 홍보를 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TLO(기술이전본부)는 각 대학의 기술을 가져다 특허를 내고 기업과의 라이선싱으로 TLO와 대학이 수익을 배분을 하는데, 도쿄대학에서는 TLO를 통한 산학협동의 기업이 상장에 성공하면서 20억 엔의 수익을 냈습니다. 결국 대학의 내적 힘을 기술화로 촉진해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이 내적 능력을 가지고 상업화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마인드가 있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우수한 한국인 교수들이 국내 대학으로 옮기면 시간이 흐르면서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경련 이병욱 상무 :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인데 지나친 통제와 분과주의 사회 구조가 하향평준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창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평가시스템상의 문제가 한 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수평가 시 연구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 경영, 프로젝트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앙대 최성희 편집장 :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덧붙이자면 국내에서도 University Identity 법 통과로 학교 로고를 뺐지, 넥타이 등에 새겨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숙명여대의 경우 동창회에서 숙명여대 로고를 새긴 상품을 상업화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학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등에서도 운영 중입니다. 교수의 창의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교수들은 의무 강의 시간이 많고, 의무 논문수도 많으며, 행정업무가 많음으로 학생에게 쏟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은 교수의 창의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평가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순수 연구보다는 대외활동 하는 교수가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이 순수 연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평가가 중

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대학이 얼마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의 자율성 보장

전경련 이병욱 상무 : 우리의 대학은 외국에 비하면 규제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03년부터 규제 완화하고 있지만 큰 것은 놔두고 작은 규제만 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규제의 틀을 포지티브 방식(원칙 금지-예외 허용)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 즉, “원칙은 자유로 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학들의 책무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앞서가는 대학을 경쟁 대학이 끌어내리려 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상존하는 한 대학의 자율화는 기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앞으로 대학자율화 시대에는 대학들의 사회적 책무성이 중요하므로 대교협의 자율조정능력 제고가 요청됩니다.

진행자 :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대학 협의체는 정부의 예산을 받아 배분 역할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자율을 줬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대학-전문대학, 수도권-비수도권, 심지어 학내의 이공계-인문계 등 이해집단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 자율화가 될수록 대학 사회 내의 자율 조정 기능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이런 점에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의 역할과 책임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중앙대 최성희 편집장 : 우리의 대학이 보장받는 자율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입시 정책만 봐도, 어떤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현 입시정책으로는 학교, 학과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수능을 신뢰하지 않지만 대부분 수능 위주로 학생 선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 : 그러한 문제는 대학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 유명대학의 편

입학 부정사건 등을 보면서 일반 입시 등이 공정했다고 어떻게 신뢰를 갖겠습니까. 자율을 달라고 하지만 모든 대학에 자율성이 부여되었을 때 모든 대학이 과연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 예로, 막대한 액수의 누리사업 예산이 전국 대학에 나눠졌는데, 그 예산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학교 외형을 바꾸는데 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학교의 자산을 늘려주는데 국민의 세금이 쓰인 것이지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학과 잘하고 있는 대학은 객관적 평가로 차별을 두어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부분의 국민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대입니다. 대학도 국민 보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명실공히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잘 구분하여 지원하고, 발전해 나가는 대학의 발목은 잡지 않아야 세계 50위 대학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진행자 : 대학의 경영 투명성 문제는 대학들이 자율을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포함한 대학 입시, 그리고 국립대 법인화 문제에 관해 의견 나누어 주십시오.

3불 정책, 국립대 법인화

전경련 이병욱 상무 : 3불 정책 중에 자율화를 하다보면 학교 간 등급문제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본고사는 대학의 선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는 사원을 뽑을 때 4~5단계를 거칩니다. 자사의 인재 선발 과정이니 당연히 까다롭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자체 브랜드 상품인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해서 대학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그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여입학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감안하여 엄격한 조건하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립대법인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직원 신분 보장 문제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간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공무원 신분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사회적 문제와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 :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논리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다는 몇 대학의 교수나 운영진 등 대학교육의 공급자의 입장에서 나온 논리라고 봅니다. 반대논리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법인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대학의 자율성, 다양한 경영기법 도입,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 등을 위해서도 국립대 법인화는 필요합니다. 국립대학들은 그 동안 받아온 국가지원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기도 하고, 교직원의 신분이 불안정해 지는 것을 염려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도 국민을 감동시킬 만한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와 지자체, 기업, 학부모들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3분 정책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일단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어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입시 운영', '학교재정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없이는 모든 것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은 책무성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담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보장에 찬성하는 것은 무한한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기에 대교협의 역할이 중요하겠지요.

중앙대 최성희 편집장 : 법인화에 대해서는 투명성 등을 위해서라도 되어야 한다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분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조사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대학언론사(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39.7%, 반대 58.4%로, 찬성 의견으로는 재정 수입 증대의 효과를 주로 답했으며, 반대 의견으로는 비리 등의 우려, 기회 불평등 등이 있었습니다. 고교등급제

에 관해서는 찬성이 46.5%, 반대 49.6% 였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경우는 찬성의견이 많았고, 그 외 대학은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찬성의 이유는 어차피 명시하지 않아도 고교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오히려 수면화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고사에 대해서는 54.2%가 찬성, 38.4%가 반대로,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에 입시는 일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정책자나 내 자식을 교육시킬 정책을 개발한다는 사명으로 올바른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학의 자율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입니다. 우리 대학들이 변화하는 다양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적응하고 하루빨리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자율화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부의 대학 정책을 일일이 간섭하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앞으로는 가능한 모든 것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잘못된 철저히 책임지우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외적으로 많은 규제와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 발전이 늦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대학들도 현실에 안주하면서 노력하려는 자세가 부족했고, 아직도 공급자 위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대학들도 자율에는 차별성, 투명성, 사회적 책무성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들의 자율적인 조절 능력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 대학들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대학들이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아니 그래야 합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